

0817(수) 예레미야 37-41장 믿음인가, 집착인가?

다윗 언약에 대한 유다의 집착은 쉽게 깨지지 않았습니다.

시드기야는 위기 때마다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(21:2,37:3).

왕이 극적인 상황 변화와 기적을 바라며 기도를 부탁했을 때,

하나님은 <너희 삶에 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>고 응답하셨습니다(21:2,21).

정의와 공의 없는 다윗 왕조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.

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선포합니다(38:14-16).

나라가 망하고 많은 이들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(39:1-10).

바벨론은 사반가문 그다랴를 유다 총독으로 임명했습니다(40:7).

그 후, 남은 자들의 공동체에서 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.

다윗 왕가 통치 하에서 빈민이었던 자들이 경작할 땅을 얻고(40:10),

여러 이유로 쫓겨났던 자들도 유다로 다시 모여들었습니다.

공동체에 예상 밖의 풍요와 생기가 돌았습니다(40:12).

그러나 그다랴의 통치도 잠시였습니다(41:2).

다윗 가문, 왕손에 속하는 이스마엘이 총독과 그 측근,

바벨론 군사들과 순례자들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(41:3,5).

그들은 멸망을 목도하고도 여전히 주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(41:10).

다윗 언약에 대한 잘못된 이상과 집착은 포로 귀환 후에도

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(스4:6-7,9-10).

성전과 왕조,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<하나님>으로부터 옵니다.

혈통이나 인종, 종교적 행위들로 정의되거나 유지 되지 않습니다.

이방인임에도 하나님을 위해 행동했던 구스사람 에벳멜렉은

<누가 참 하나님 백성인가? >를 묵상하게 합니다(38:4-5,9).

새로운 왕, 메시야는 단지 혈통이나 가문이 아니라

그가 가져올 시대와 변화들로 평가될 것입니다.

나는 약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있습니까?

❶ 약속하신 단어와 문장에 집착합니까, 하나님의 뜻에 집중합니까?

❷ 나의 욕망과 집착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예레미야 37-41장